

월간 증 현

'79 10 월호



청지기 의식

성경에 보면 청지기란 말이 여러군데 나오는 것을 본다. 창 43:16 말씀에 보면 거기 청지기란 말이 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대신으로 있을 때 그의 창고를 맡아 관리한 사람을 청지기(Steward)라고 불렀다. 청지기란 개념은 신약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있다. 특히 신약에서의 청지기 개념은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는데 그 하나는 에피트로포스(Epitropos)요 (마 20:8, 눅 8:3) 또 다른 하나는 오이코노모스(Oikonomos)이다. (눅 12:42, 16:1, 고전 4:2 등) 전자의 의미는 지배인 혹은 감독자란 뜻이요 후자의 경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여하튼 청지기라는 말을 생각하게 될 때 느껴지는 의미는 분명한 것이 있다. 그 첫째는 청지기는 주인은 아니다 (Steward is not a master.) 라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면 주인은 누구이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에 틀림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란 것이다. 인간은 시간과 능력과 물질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요 위탁 받은 자들인 것이다. 관리자이다. 이런 생각이 곧 바로 청지기 의식인 것이다. 이와같은 생각이 분명하면 할수록 인간은 겸손하게 되고 부정과 욕심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의 주권, 그의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talents)를 맡기셨다. 맡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 똑같이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불공평하게 주신 것도 아니다. 각각 재능대로 알맞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원망, 불평, 시기 또는 부끄러워 할 것도 없다. 다만 오늘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내게 합당하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족과 감사와 긍지로 맡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 할 뿐인 것이다. 고전 4:2에서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맡은 자가 곧 청지기인 것이다. 지금은 10월이다. 10월은 결실의 계절이다. 모든 수목이 열매를 맺는 때이다. 그런데 요 15:16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는데 있다고 하신 말씀이 있다. 청지기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란 것이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듯이 청지기 역시 그 맺는 열매로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자는 상급을 받으려니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때가 있게 되는 것이다. (마 3:10, 7:19) 아물든 하나님 앞에 청지기 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그리스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갈 5:22-23에 보면 아홉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다. 이런 성품들이 우리의 성격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활화 되어 나타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맡은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곧 책임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추수할 때가 가까와 오고 있다. 청지기로서 결산해야 할 때가 우리 앞에 닥아오고 있는 것이다.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빈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가 주렁 주렁 맺어지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주 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총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7 권 제70호

월간 충 현

- 10월호 차례 -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주님이시니
사랑하노이다

시편 124:1-2

권 두 언	청지기 의식	주 간 · 2
이달의말씀	계속하여 성공자가 되려면	김창인 · 4
지상특강	종교개혁의 3대지주	윤형철 · 6
특별취재	애굽으로 떠나면서	이준교 · 8
	새로운 선교지 - 인도 -	엘리아 겔간 · 10
프로필	애굽선교사 이준교목사	편집실 · 9
	인도선교사 엘리아 겔간 전도사	편집실 · 11
특별대담	빌립보교회 - 이종표 목사 -	이형수 · 12
중공선교	마카오의 중국교회를 세우자	김영휘 · 15
특별기고	우리말 성경 번역사	김차생 · 16
주간의만나	시편 63편	김창인 · 19
편집실칼럼	실천한다는 것	이형수 · 20
찬송가감상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김하진 · 20
책 정보	9월중 들어 온 도서	도서실 · 21
책 소개	성령과 기질	김양래 · 21
기독교윤리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김하진 · 22
해외선교	9월 선교자 보고, 소식	선교회 · 24
구역소식	9월중 새 교우·결혼·별세명단	권활회 · 26
권찰수첩	구역예배 인도	김재창 · 27
구역공과	제 27 · 28과	이성봉 · 28
주교소식		교육위원회 · 30
교회소식		· 32
10월의행사		· 34
편집후기		· 34
이렇게 답한다	성경해석은?	이승근 · 35
실로암 못가에서	하나님은 사랑	· 36

표지설명 :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충성 할 것을 다 시 다짐한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계속하여 성공자가 되려면

렘 / 17 : 5~8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내용을 계속하여 성공하는 복을 받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과거에는 성공했어,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 나오면 개인의 불행은 말할것도 없고 후손들이 불쌍해집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시원치 못했어도 지금은 좋아, 앞으로는 희망이 있지” 이런말을 들으면 개인도 좋고 후손에게도 좋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은 과거에도 잘했지만 지금은 더 잘하고 앞으로는 희망이 더 많아”하는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럼이 없이 버젓하게 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천천교회는 한국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성공한 교회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한 말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보다 충실한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가 되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무엇인가 있었던 것을 오늘에 게으르다가 이미 받았던 복을 잃어 버리면 우리는 너무 불쌍해지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것 뒤편지 말고 오늘부터의 여생이 계속하는 성공을 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I.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공부하는 사람이 박사 학위를 받고 정치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고 할 때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놓고 볼 때는 만여명의 교인, 일곱분의 해외전

교사,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고 성공했다고 합니다. 성공에는 이처럼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성공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어느 만큼 영광을 돌리느냐를 보아 영광을 돌리면 성공이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 실패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많든지 무식하던지, 권세가 높든지 못 높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 나라, 그 민족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어느 만큼 영광을 돌리느냐 여기에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둘째, 나와 관계있는 분들에게 유익이 되면 성공이고 손해를 끼치면 실패입니다.

부모님, 형제들의 자람감이 되고 가문을 빛내이면서 나와 관계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유익을 끼치면 성공이고 마음을 괴롭히면 실패중에 실패입니다. 성공은 이 땅덩어리, 서울, 대한민국, 지구 덩어리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얼마나 유익을 끼쳤느냐 또 그것이 잠시만 있다가 꺼져 버리는 등불 처럼 되면 그 당시는 좋았을지 모르나 참 성공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후 세대에 복을 물려 주는 업적이 쌓여야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내가 세상 떠날 때에 “아무개는 바로 사신 어른이야”하는 말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앞에 서는 날 “너 세상에서 잘하고 수고했구나” “하시면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시는 상급을 받는 것이 성공입니다.

II. 계속하는 성공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니까

밥을 미리 열흘치 먹어 두는 사람이 없고, 공기를 보름치 마셔 두는 사람이 없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셔야 하듯이, 성공도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성공자가 되려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병들면 곧 쓸모없이 됩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병이 들면 계속해서 성공하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병이 있습니까.

1. 병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교만의 병입니다.

교만의 병에 걸리면 받았던 복도 쏙게 되고 새로이 복 받을 길이 끊어집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적당한 토양과 적시에 내리는 비와 햇빛 때문입니다. 농부가 비를 내리고 햇빛을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현교회의 부흥, 발전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이는 진적으로 하나님이 부흥 시킨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님의 은혜를 불러 옵니까? 인간이 6.25동란에 쫓겨 갔던 우리를 서울로 보내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박사가 되어도 억만장자 부자가 되어도 나는 남보다 낮거니 하면 성공은 그 시간에 끝이 나는 시간입니다. 계속하는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면 경솔해지고 잔인한 성격이 짝습니다. 사람 앞에 쫓겨납니다. 중현교회가 병들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2. 게으름의 병이 있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기회를 놓친다는 말입니다. 내가 게으르면 기회를 놓치고 원수는 기회를 얻어 패전할 것은 뻔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게으르면 포도넝쿨보다 썰매가 더 큼니다. 성경보는 데에 게으르면 잡념이 신앙생활보다 더 자라납니다.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면 욕심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준비할 때 썰썰 매면서 준비하고 일을 당하여서는 담대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중현교회는 기회를 놓치는 게으름뱅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 안하고 게으르다가 낙제하면 안됩니다. 남 공부할 때 놀다가 떨어지는 것은 죄입니다.

3. 욕심의 병이 있습니다.

욕심이란 무엇입니까? 욕심은 허락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나라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가지려 하면 바늘 한계를 가지려고 해도 욕심입니다.

교회의 부흥, 개인의 성공은 청령에 있습니다. 욕심에 매 묻지 않아야 사리를 판단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4. 필요없는 경쟁심의 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나아갔려고 하는 것

을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걸음 가니 나는 열두걸음 가겠다. 그거 좋은데 왜 안되느냐? 경쟁의식에는 2가지의 무서운 일이 숨어 있습니다. 경쟁의식은 남보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떨어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힘 전부들 쏟아 충성만 하면 됩니다. 내 힘껏 해서 남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에게 떨어지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 좋습니다. 우리는 충성으로만 죽을 삼아야 합니다.

5. 원망하는 병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은 반역의 시작이고 원망은 원수와 내통하는 길입니다. 누가 반역자가 됩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반역자가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일만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가정과 나라를 뒤엎는 원수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조용히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붙들어 두는 사람은 교회를 망치는, 가시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망치는 미련장이입니다.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끝난 사람입니다.

6. 당파싸움의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단체는 선을 이루기 위해 있습니다. 그룹이 교회부흥' 말고 자기의 권리를 위하여 있는 그룹이라면 그 그룹은 하나님께 원수인 그룹입니다. 좁스런 당파는 위인을 죽이고 지도자를 죽입니다.

그런고로 각 개인이나 교회가 성공자가 되려면 위에서 이야기한 여섯가지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병 들었으면 빨리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는 겸손을 가지고,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참 부자되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욕심에 매묻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젖지 않고 예수님의 피에 젖도록 합시다. 경쟁의식을 버리고 오늘에 충성합시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쉬지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남은 때는 지렛대에 짐은 나무처럼 가뭄을 모르며 일이 무성하고 열매 맺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라디오 방송설교 안내

-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 매주일 오후 7시 15분

아세아 방송 1566KHZ



종교개혁의 3기동

- 종교개혁 제462 주년을 맞이하면서 -

윤 형 철 목사

(대학부지도)

1. 루터의 인물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스레벤에서 출생하였다. 광부였던 그의 부친은 루터에게 법학을 공부시키려는 의도에서 맨스펠드, 막테부르크, 아이제나하 등으로 이사하면서 교육을 시켰다. 루터는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1505년 문학사 학위를 받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 공부를 시작했으나, 영혼 구원의 문제로 깊이 고민하다가 그 해 7월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 후 1507년에 사제로 안수 받고 1509년에는 신학사가 되고, 1512년에 신학박사가 되어 뢰텐베르크 대학에서 신약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다. 1517년 이후부터는 종교개혁 운동의 기수로서 강의와 설교, 저술활동에 일생을 투신했고, 특히 1521년에는 헬라어 원문에서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는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1546년 2월 18일 고향 아이스레벤을 방문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2. 종교개혁의 간접원인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3가지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도덕적 부패를 들 수 있다. 당시 로마 교황청과 성직자들의 부패는 극도에 달하였었다. 성직자들은 그들의 사명보다는 권력과 안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성직을 매매 하는 행위가 성행하였었다. 또한 돈을 받고 한번 서약한 일도 변경시켜 주고, 교회치리법에서도 면제되는 불법특혜를 베풀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황의 사치는 극도에 달하여 「3층관」을 쓰고 다녔고, 교황이 한번 외출하면 3~4천 마리의 당나귀가 따라 나섰다고 한다. 심지어는 교황청에 창녀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마치

귀부인들처럼 대우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둘째로, 교리적 이유를 들 수 있다.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 직전에 그들의 부패와 오류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교리를 강조했다. 자연인은 자기 이성과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계시까지도 이성에 의해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Nature)은 은혜에로 인도하고, 이성은 계시에까지 인도한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교리를 더욱 체계화하고 강조했다. 즉 성경대신에 이성을, 은혜 대신에 자연을 강조했고, 면죄부 교리를 만들어 믿음 대신에 공로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셋째로, 사회적 이유를 들 수 있다.

각 국에서는 교황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불만이 일어나고 있었다. 교황이 정치에서도 절대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게 되자, 각 국은 교황의 주권하에서 벗어나기를 투쟁했다. 또한 각 국의 세금이 교황청으로 징수되는 데 대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세금을 로마에 바치지 못하게 했고, 로마 순례를 금지하는 등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 종교적으로도 교황만이 총화를 소집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권한에 반기를 들었고, 교황이나 신부·감독만이 영적 지위를 갖는데 대해서 모든 신자는 누구나 영적 지위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다.

3. 종교개혁의 직접 원인

1513년 독일의 3대 교구인 막테부르크, 마인츠, 할베슈타트의 감독자리가 공석이 되자,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여러 교구의 감독직을 겸직하고 있던 알브레히트가 이들 교구의 감독직까지 교황청에 요구했다. 이 때 마침 1506년부터 시작한 성 베드로

성당건축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교황청은 감독직의 댓가로 12,000 ducat를 요구했으나 알브레흐트는 7,000ducat를 내겠다고 맞섰다. 결국 협상 끝에 10,000 ducat를 받고 당시 당시 교황인 레오10세는 알브레흐트에게 감독직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 막대한 자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알브레흐트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수입의 50%는 교황청이 차지하고, 50%는 알브레흐트 자신이 차지한다는 조건으로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면죄부 판매승인을 얻어냈다. 알브레흐트는 도미니교단의 수사로서 웅변가인 텃셀을 고용하여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다. 텃셀은 “보시오, 지금 베드로와 바울의 뼈와 수많은 성자들의 유골이 황폐해져가고 있소. 그러나 교황청은 돈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소. 거룩하신 교황께서는 황송하게도 그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소서. 이제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하여 이 표를 사면 이 은화가 현금계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곧 천국으로 올라 갈 것이요”라고 선전하면서 드디어 그 일행이 루터가 있던 뢰텐베르그 성을 향하여 오고 있었다.

당시 뢰텐베르그 대학의 젊은 신학 교수 루터는 이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불타오르는 의분과 그의 신앙적 확신으로 붓을 들었으니 그것이 곧 「95개 조항」(Ninety-Five Theses)이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쯤에 루터는 라틴어로 기록한 이 반박문을 뢰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봉화는 울랐던 것이다.

95개 조항의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로마에 있는 대사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독일 국민의 피를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교황이 연옥까지 통치할 수 있다는 비성경적 교리를 반박한 것이요, 셋째는, 성자의 공로가 우리에게도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면죄부교리의 신학적 오류를 공격한 것이다. 루터가 당초 이것을 쓴 것은 민중을 선동하여 당장 개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망에서 그것의 가부를 토의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95개 조항은 기름에 불이 붙듯이 두주일 후에 온 독일에 알려졌다. 한달 후에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4. 종교개혁의 3 기둥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본 입장을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1)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로마교회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에 절대성을 부여했다. 교황은 도덕적, 신앙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없고, 따라서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그 해석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터

는 오직 성경만이 무오하여 성경만이 참된 권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이다.

2) “오직 믿음” (Sola Fide)

루터가 대학에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들을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성례를 통하거나, 혹은 금식기도나 자선, 선행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루터는 “천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다. 그러던 어느날 하나님의 의란 그의 은혜와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그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순간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다. 종교개혁의 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롬 1:17)는 말씀에서부터 끊임 없이 솟아 나왔다.

3) “오직 은혜” (Sola Gratia)

루터가 그의 저서 「선행론」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다. 교황이나 신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인 영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5. 결 론

종교개혁 46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엄숙한 교훈을 받게 된다. 교회가 교회본연의 사명보다 세속적인 것과 자기 치장에만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개인의 권력이나 조직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속적인 방법에 물들어 버리고, 성직자들은 세움을 받은 목적을 망각하고 특전 의식을 누리면서 요구하는 자세로 베일 속에서 썩어져 가고, 권력의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새우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제2의 루터를 새우시기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루터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란다. 말씀앞에 겸손히 설 때 자아의 참된 모습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사명이 분명히 새롭게 보여질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

“보라 이제 나는 십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2-24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선교에 대한 열의와 그의 사명인식과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선교의 비전을 갖게 하신것을 감사하는 중에 이번에 흑암의 나라 짐은 대륙 무슬렘의 나라 이집트로 가게 하셨습니다. 고 이연호 선교사님이 피를 뿌려 터전을 마련해놓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지는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미개하고 무절서하고 종교적으로도 핍박이 심하고 선교하기에 어려운 나라인가 하는 것은 족히 알고 있는 터인것입니다.

이와같은 어려운 나라로 부족한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집트는 생각지않았을 것입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동남아시아로 자세히 말한다고 하면 인도네시아나 기타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며 준비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길로 허락지 아니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금 행 16장의 말씀을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자신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비두니아

등의 소아시아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하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그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 역시 이와 같은 선교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분만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던 여호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였던 그 주님만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느라니라 하시니라(수 1:9) 이는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갈때에 두려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역려 하지도 아니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원과 협력입니다. 매일 밤마다 철야하시며 기도하여 주시는 169구역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생각할때 정말로 마음 든든한 것입니다. 저는 이시간 애굽을 향하여 떠나면서 앞으로의 저의 애굽선교에 대한 대체적인 선교의 계획과 포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선 그 나라의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배워 익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공용어는 아랍어(Arabic)입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 현지인들의 말과 풍습에 익숙하지 못하고서 올바른 활동을 하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해야 할 일은 이미 그곳에 세워진 한인연합교회를 목회하는 일입니다.

현재 카이로에는 한인 교포가 약 200명(어린이 포함)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신자가 약 40-50



(이준교 선교사 가족. 좌로부터 이준교목사 석신(장남), 석현(차남), 사모 김수련여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선 가서 이들을 심방하며 예배를 인도하며 이들에 대한 신앙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진숙선교사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세째로는 애굽의 복음주의 계통의 교회들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일과 현지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그곳의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 신학교와 관계를 맺고 강의도 맡으면서 제자를 육성하는 일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성경학교나 신학교를 세워서 일군을 키울수는 없는 줄입니다. 그런고로 현재 있는 그곳 신학교와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자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해서 그들을 통하여 현지선교의 기반을 닦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곳에 우리 한국 선교부가 경영하는 성경학교 혹은 신학교도 세우는 날이 오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들중에서 똑똑하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한국에 데려다가 유학을 시켜서 유능한 지도자로 키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는 애굽 원주민에게 선교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본래의 목적입니다. 애굽 전체의 인구는 약 3700만 명인데 60%에 해당하는 회교도들에게는 법적으로 선교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 하시면 무슬렘도 깨어질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애굽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집트를 중심한 리비아, 수단, 이디오피아 등 아프리카의 인접제국과

협력선교를 모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나이지리아와 또 다른 나라에 두 분의 한국 선교사가 나아가게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손을 잡고 일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 믿습니다. 바라는 우리 총회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프리카 선교 지망생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하여 온 성도 여러분의 끈임없는 기도와 격려가 늘 있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후 1979년 10월 31일

애굽으로 떠나면서

선교사 이준교

김수련

이석신

이석현

* 프로 필 *

이집트선교사 이준교 목사

주 애굽선교사로 확정되어 곧 출국하실 이준교목사님은 그동안 고등부교사, 대학부교사, 부지도, 청년부지도 성경학원 지도 및 월간중현 주간등으로 우리 교회에서 10여년이상 다방면에서 일해 오신 분이다.

이목사님이 우리 중현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은 1963년, 군복무를하며 야간에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였다. 그후 1969년 주일학교 고등부 교사를 시작으로 다방면으로 봉사를 해 오셨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총신연구원에 입학, 밤에는 예일여자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일하시며 계속 공부하는 일을 늦추지



않으셨고 또 그 바쁜 중에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시기도 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서 모두 이준교목사님이 낚으신 이름일 것이다. 매월 교사의 벗에 교육관계기사를 연재하셨고 또 대

학·청년부 성경공부교재를 계속 집필, 연재하시기도 했다. 선교사명은 재학시절부터 싹 터 목사님 자신으로는 동남아를 겨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목사님의 안식년 휴가를 위한 후임자로 이준교목사님이 내정되었으나 인도네시아의 사정 및 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 여의치 않고 주춤하던 중 이집트의 이연호 목사님의 갑작스런 순직으로 지난 8월 이집트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굳게 믿고 나간다는 이준교목사님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오는 10월 31일(수) 총회주관의 파송예배를 마치면 비행기 사정이 되는대로 출국, 홍콩, 방콕을 거쳐 임저 카이로로 가실 예정이다.

사모 김수련 여사와 사이에는 두 아들(석신, 석현)이 있다.

1938년생 경북 대구가 고향이다.

* 선교사로 떠나며 *

새로운 선교지 — 인도

어떤 곳인가?

엘리아 겔간 전도사

(인도 선교사)



인도는 6억 5천만의 방대한 인구로서 자유세계 국가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인도 인구의 80%가 농촌인구이고, 그 나머지 20%는 도시인구이다.

인도는 아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도 각양각색이다. 남부의 기후는 열대 혹은 아열대지방이고, 북부인 히말라야 근처 서 티베트 지방은 영하 40도(섭씨)까지 내려간다.

지역적으로도 역시 다양하다.

어떤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은 광대한 사막이 있고 또 추운 고원지역이 있다. 예를 들어 서 티베트지역은 강도 없고, 나무도 없는 광대한 추운 고원지대 뿐이다. 이 고원의 정상(頂上)은 해발 1,800m나 된다.

또한 인도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 많다. 어떤 곳은 강수량이 100mm도 안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4만mm나 되는 곳도 있다.

인도 국민은 주로 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곧 드라비다족(Dra-Vidians)과 아리안족(Aryans)과 몽고족(Mogorians)이다.

또한 인도는 800개의 방언이 있으며 이중 22개 언어, 즉 영어와 힌두어(Hindi)는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언어이다.

이상과 같은 면에서 볼 때 인도는 한나라(a country)가 아니라, 작은 대륙(a small continent)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의 주요 종교는 힌두교(Hinduism)로서, 전 인구의 83%나 되며, 그 다음이 회교(Islam)로서 11%이고 기독교는 2.5%~3%(구교포함), 즉 1천 6백만명에 불과하고, 그 밖에 불교가 0.17%이다.

전 인구 6억 5천만에

기독교는 단 3% 뿐

인도정부는 헌법의 보장 아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있으나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인 강력한 압박이 있다. 심지어 그들의 친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아무리 법적으로 허락되고 있다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인도의 사회제도 및 가족제도로서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은 이율배반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경제면에서 인도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국민총생산액(GNP)은 불과 200달러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불균형한 분배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농촌은 여전히 옛방

식의 농사경영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들어 소가 가래를 갈고 깊은 샘물의 물을 사람의 손이나 동물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원시적인 관개시설을 가진 농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편 어떤 곳은 67,000마일의 긴 운하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관개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으며 새로운 영농기술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고 있는 곳도 있다.

교육면에서 볼 때 인도는 전 인구의 80%가 여전히 문맹인인데, 그 이유는 교통 통신의 어려움과 교육시설을 갖춘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현재 대학은 120개소(대학생수는 300만명)이고, 150개의 의과대학과 28개의 연구소와 20개의 농과대학이 있다.

80%가 문맹자

의료분야에서 인도는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큰 도시에 집중해 있고, 의사들을 강제적으로 농촌에 파견하려 하고 있으나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료시설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교병원과 무료진료소가 더 많이 여러지역에 있어야 될 것이다. 이 같은 일을 위해서도 훌륭한 기독교계 의사들이 많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역사면에서 볼 때 인도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중의 한 사람인 도마가 인도남부지방에 전도하려 온 때 부터라고 한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역사는

5세기 말에 가장 번성했던 경교(景敎 Netorian)의 전파이다. 13세기 후반에 이르거는 로마케토릭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야소회(Jesuit)에서 파송한 프랜시스·자비엘(Francis Xavier 1506-1552)과 로버트·노빌리(Robert de Nobili)의 두 선교사는 인도를 위해서 값없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다.

제일 처음으로 신교(Protestant) 선교사가 들어 간것은 1705년으로 덴마크선교단(Danish Halle Mission)에 소속된 선교사들의 내왕이었다.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93~1834)는 1793년에 인도에 들어 와서 40년간이나 일생을 바쳐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는 전도이외에도 많은 시간을 인도의 여러말로 성서를 번역

하는데 보냈다.

지금은 이 지역에 불과 200명의 기독교인이 있을 뿐이고, 두 세명의 늙은 목사가 있으며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초기 교회중의 하나는 이미 폐쇄되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신다면 이 교회들은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이다.

또 한편 북인도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교단체중에 하나가 바로 모라비안선교단(Moravian Mission)이었다. 이 선교단의 활동을 통해서 엘리야 겐간(Elijah Gergan : 본 교회에서 파송한 인도 현지인 선교사) 전도사의 할아버지와 몇몇 동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고 모라비안교회가 현재 라다크(Ladakh) 지역에 살고 있는 티베트인 사이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이 곳에서도 복음을 원하고 있으며 주안에서의 믿음을 갖고자 부르짖는 영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수할 때가 되었으나 일꾼이 없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 누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인가?

특히 인도는 교역자 선교사는 입국하기가 어렵고 평신도선교사의 입국이 가능하므로 여러가지 기술을 가진 평신도 선교사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사, 간호원, 의사, 농업기술자 심지어 태권도, 사범등과 같은 기술을 가진 평신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기술을 가르치면 매우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될 것이다.

본 교회 당회에서는 지난 8월 인도 현지인으로서 엘리야 겐간 선교사를 인도 카시미르 주재 선교사로 파송 결의하였다. 이로써 한국교회로서는 최초로 인도에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교회에서는 10월 31일 파송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여기에 간략히 그의 프로필을 소개한다.

엘리야 겐간(Elijah Gergan : 32세) 전도사는 인도 북부지역인 카시미르에 있는 라다크(Ladakh) 출신으로 카시미르대학(식물학전공)을 졸업한 후 대학의 교수까지 지낸 지성인이다.

1972년 라다크에 있는 성경복음번역협회(Gospel Recordings Associations)의 한 일원으로 3년 반동안 복음사업에 봉직하면서 선교의 비전(Vision)을 갖게 되었고 그 당시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대하여 배우기를 열망한 나머지 기도하던 중 1975년 9월 18일에 한국으로 건너와서 아시아연합 신학 연구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제 금년 10월말 경

* 프로필 *

인도 현지인 선교사

엘리야 겐간 전도사



이면 상기 대학원에서 신학 학사와 선교학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게 된다.

겐간 전도사의 증조할아버지는 티베트 정부의 행정관으로서 고대 티베트 역사 연구를 하는 학자이었다. 그는 19세기 초 모라비안교도(Moravian Mission)들의 복음활동에 동조하여 티베트어로

성경번역하는 일에 협력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업은 할아버지대에 이르러서 완성하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12세때 기독교인이 되었고 티베트어 성경번역사업에 전생애를 바치기도 하였다. 아버지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엄격한 신앙훈련으로 지도하였고 겐간 전도사는 마침내 그의 대학교수 시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그의 선교개척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라다크에 교회를 건립하고 티베트 동쪽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며, 또한 중공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이므로 앞으로 대 공산권 선교 및 대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주소 : SONWAR SRINAGAR -
I, KASHMIR INDIA

빌립보 교회—이종표 목사

해외 한인교회만이 갖는 중대 사명과 책임을 절감

이달에는 지난 10월 15일 잠시 귀국한 뉴욕의 빌립보교회에서 시무하시는 이종표목사님을 만났다. 이종표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학생으로 시작해서 교사가, 또 지도교역자가 되어 수고하시며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신 분이다. 목사님은 지난 1972년에 미국으로 건너 가셨다. 우리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뉴욕의 빌립보교회에서 시무하시며 목사님은 한인교회의 역할과 사명등에 대해 남다른 견해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어 세계 선교 및 북한을 비롯한 대 공산권선교에 이모양 저모양으로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모국교회)와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점에 역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특히나 해외에 수백가구가 나가 있는 총현의 식구들과의 계속적인 관계등을 위해 서로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귀한 말씀을 해 주셨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계셔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목회학을 전공할 생각이 있었기에 신학교를 선택할 때에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단의 신학교를 가려고 생각하고 보니 남침례교단이 가장 부흥성장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동남침례교신학교(South 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 목회학전공 석사과정에 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2년간 공부하고 1년간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인교도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서로 연계를 갖게 되면서 크리스찬들이 모이고 성경공부를 하는 모임이 생겨 그 모임을 지도했지요. 그 모임이 40명정도까지 모이게 되어 가정집이 모자라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비공식적인 한인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이지요. 그러는 중에 전도하게 되고 세례받을 자가 나오게 되고 성례식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 목사가 필요하게 되어 미국 남장로교단에서 정식 전도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후에도 교회는 부흥발전하여 160여명정도까지 모였지요. 그러나 공부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려면 차에 겸장인 목사님을 뉴욕에서 만나 뉴욕에 빌립보교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977년 11월 이지요. 그후로 빌립보교회도 착실히 성장해서 지금은 80명 정도 출석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 준비없이 개인

대담·정리 / 이형수 집사

적인 일, 즉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가볍게 나왔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환대해 주시니 거쁘고 감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뉴욕에 한인교회를 직접 설립하시고 또 목회하시면서 한인교회가 갖는 특수성과 그 사명을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총현교회의 세계선교와 북한 및 공산권선교등과 관련해서 해외 한인교회의 역할 및 사명, 본국교회와의 협력 관계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고 해서 비판도 많이 하지만 저는 한인교회의 의의와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몇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째, 서양교회와 동양교회와의 교량적역할입니다. 서양교회의 목회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목회의 방법들을 한인교회에서 흡수하고 또 미국의 교회들은 한국교회의 교세확장운동이 한인교회에 전염되고 미국교회에 까지 전파되어 큰 자극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커지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크는 교회는 모두 한인교회니까 그들이 눈으로 한인교회의 성장을 직접 보게 되니까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교회와 한국교회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인사회의 유일한 후원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민족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언어, 직장등의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에 유일한 후원기관이 한인교회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게 되니까 이것이 전도에 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주자 해서 나온 것이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감화를 받고 교인이 되곤 합니다. 더구나 미국 사회에서는 교인이 되어야 어디가나 인정을 해 주거든요.

세째, 한인 교민 사회에 도덕적인 가치 설정에 기준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이에 따른 적응, 또한 생활안정의 문제등으로 가정에서의 질서가 점차 파괴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이 직장에 나가 저녁 늦게 돌아오기에 틈 곳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자녀들이 사회에서 보는데로 생활하고 방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의 고충이 많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 “아름다운 가정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등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아/자녀교육을 위해서도 교회에 나와야 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점에서 해외의 한인교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째, 가는 곳곳마다 교회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사람들은 이민오면 석당을 하고 일본사람들은 회사를 설립하여 수출입을 하고 한국사람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은 채소장수를 하건, 학생이건, 교수가건 모두 교회로 모입니다.

미국의 이민역사를 보면 초대 이민 온 사람들이 오면 교회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후반에 초대 미국의 이민사와 같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민족이 있으니 바로 한국민족이라 이겁니다. 한국사람들은 4~5가구만 모여도 교회를 만듭니다. 목사가 없어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는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으니 교회는 자라게 됩니다. 뉴욕만해도 인구 10여만에 교회가 100여개 가량 됩니다. 제가 생각하거로는 미국 이민 온 사람중에 60~70%가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회가 기독교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미국 사람들에 대한 복음화입니다.

미국에 간 사람들은 처음에 지방에 있는 교회를 빌려서 사용했는데 자기들 교회보다 교인들이 더 많아지니까 모두 놀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청해서 부흥하는 이유를 들려 달라 하는데 사실은 가서 한국교회에 대해 자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민족복음화 대회, 농어촌전도등 한국교회의 활동상을 소개하면 그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 100년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매년 복음적인 교회가 수백교회씩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과 자기들이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의욕같은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돈만 내라 사람은 우리가 보내겠다. 사실은 미국 어느 교단에서는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 해외 한인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스데반 순교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고라는 기록이 있지요. 마치 지금의 한인교회와 같지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예수를 전파하니 ... 라는 기록을 보면 오히려 한인교회가 나아가 원주민을 전하고 하는 일이 훌륭한 선교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 미국교회를 맡아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신학으로 사망선에 있는 미국교회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인교회들은 세계복음화의 기초들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나간 첫번 한인교회 담당자들은 훌륭한 기초들을 놓고 있는 선교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인의 수가 적지만 예산은 한국교회의 5~600명 모이는 교회와 비슷합니다. 즉 지적, 경제적세계를 보는 눈 등으로 실력을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미국

은 돈 걱정은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세계선교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 때 한 교회에서 10명 이상의 선교사파송은 사실 꽤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한 교회에 100~150명 정도만 되면 선교사 1명을 파송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교포수가 증가됨에 따라 그런 실력을 가진 교회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와 신앙노선을 같이 하는 교회가 미국에 100교회 있다고 할 때 100명의 선교사가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부터 파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국에서 나가더라도 재정적인 지원은 한인교회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1,000여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500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5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으니 한국의 전 교회가 달려 붙어도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인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정리해 보면 교포사회의 생활안정, 교포복음화, 원주민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기지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직접 한인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구체화되어 실천되려면 한인교회와 본국교회 사이에 그런 기운이 뻗배해 졌을 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빌립보교회와 충현교회와는 자매결연관계도 있고 또 목사님은 충현의 식구이고 하니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세계선교나 기타 다른 면에서 한인교회와의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는지요?

협력은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현재 해외의 한인교회들은 아직 미흡하지요. 한인교회 교우들이 아직도 생활안정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민 초기의 단계이니까요. 매일 매일 불안한 가운데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국교회에서는 그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무척 외롭습니다. 한인교회의 100여명 출석가운데는 본국에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등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함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고 긴장하고 하니 매우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자매교회를 맺고 그 자매교회에 대한 관심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월간충현지에 자매교회의 소식이나 활동사항들을 알려주고 자매결연을 맺은 한인교회가 특

별한 사업을 한다면 위하여 기도하여 주고 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런 것이 영적인 교류, 지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매결연교회의 교역자가 왔다고 모든 장로님들이 따듯이 맞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니 제가 무척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약해져요. 계속적으로 격려해 주고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지도자교류문제입니다.

제 3국에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안식년으로 될 때 본국에 다시 들어오지만 마찬가지로 고생이 되고 교육이 되지 않게 됩니다.

재교육 및 휴양의 장소로 해외의 한인교회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는 본국교회에서 일부러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나 입지조건 등으로 어렵거든요. 쉬는 기간에 선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다시 교육받고 또 본국에 돌아와서 정리하고 하는 3각관계의 교역자 재교육 및 교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와같은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하나 하나 구체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해외에 나가 계시면서 한국교회, 또 충현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요?

저로서는 한달에 한번씩 늘 잊지 않기 보내주는 월간충현이 매우 큰 도움을 주었고 최근까지의 소식을 자세히 알 수 있었읍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충현 교인들에게는 월간충현이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탄 신문이나 잡지들은 일부러 신청을 해야 볼 수 있는데 월간충현은 생각지도 않게 날아들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월간충현을 보면서 거기에 실린 친지들의 이름과 또 교회의 사업, 소식들을 보면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또 본국교회의 활동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새로운 봉사심을 불러 일으키고 세세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충현교회의 교인 이면 충현지를 놓고 한참동안 이야기의 꽃을 피우며 본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곤 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이 충현교회의 소식을 아는 길은 월간충현밖에 없기에 더욱 애착이 가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와같은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문서선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욱 세심히 노력하여 본국교회와 해외교회를 묶어 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월간충현은 예전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발전되어 받을 때가 기다려지고 합니다.

오랜시간동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카오에 중국교회를 세우자

김 영 휘 전도사

(해외복음선교회 및 선교부 지도)

서 언

올해부터 미·중공 국교 정상화에 따라 중국 본토 내에 서구화의 물결이 계속 거세게 일어나면서 그 동안 문을 닫았던 죽의 장막이 서서히 그 베일을 벗고 있다. 북경정부는 근대화를 국가의 최고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하여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이 열려지는 이 때를 계기로 중국의 10억의 영혼을 위한 복음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시켜야 될 때라고 본다. 이와같은 면에서 볼 때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일환으로 그 전략적 기지가 되는 마카오 지역의 개척교회 설립은 이 시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홍콩 한인교회의 홍종만 선교사님으로부터의 마카오 중국인 교회 개척에 관한 자료를 정리, 보완하여 먼저 지상을 통해 우리 중헌교회와 한국교회가 중국대륙 선교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본다.

1. 마카오의 정치형태

마카오는 1513년에 무역과 탐험을 목적으로 포르투갈인들이 상륙한 이래로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럽의 식민지로 되어 있다. 1887년 포르투갈과 중국과 체결된 수호조약에 의해 영구 관리를 획득하고 그 주권이 확립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포르투갈 정부가 임명한 총독이 통치하고 있다. 근래에는 마카오와 중국의 왕래가 더 넓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 홍콩에 비해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미치고 있는 곳이다. 포르투갈 정부로서는 마카오를 벌써 중국에 이양할 것을 말하고 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고, 수년내 중국에 저속될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풍문도 나돌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중국의 사정과 세계정세에 따라서 유동될 것이라고 한다.

2. 마카오의 지역상황

마카오는 중국본토 남단에 위치하고 홍콩에서는 비행기로 37분이면 도착된다.

마카오는 세개의 섬 즉, 마카오(Macao), 타이파(Taipa) 그리고 콜로안(Coloane)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16 km², 인구는 38만명이며, 전 인구의 97%가 중국인이고, 포르투갈인은 약 8,000명, 그 외 외국인으로 되어 있다.

마카오는 이제까지 포르투갈인의 아시아 무역의 근거지가 되어 왔으나 본국의 쇠퇴와 홍콩을 본거지로 하는 영국 세력에 눌리어 차차 쇠퇴해 왔고, 또한 항만시설이 좋지 않아 국제 항구로서는 면모를 갖추기 어렵고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행함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양의 모나코"로서 대규모적인 도박장으로 유명하고, 명소, 유적, 관광지가 많고 여름엔 피서지, 해수욕장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북경 정부가 차츰 그 영토 반환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3. 마카오의 종교상황

로마·카톨릭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되었고, 크고 웅장한 성당들이 많이 있으나 이제는 생명력이 없어 다 헐어 멸어졌고, 관광객들의 관심의 대상만 되고 있으며 어떤 성당 건물은 전혀 집회를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카톨릭 신자는 약 23,000명이고 신교 신자는 약 2,000명이며 그 외 약간 불교 신자 등이 있다.

4. 마카오 중국교회 개척의 의의

어느지역보다도 중국본토와 가까이 밀착된 곳이며 중국과의 왕래가 아주 빈번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중국 대륙 선교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가진 열심있는 교회가 설립된다면, 우선 일차적으로는 마카오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문서전도와 사람을 훈련시켜 직접 투입케 하는 방법 등이 용이한 곳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지역이 중국에 병합된다면 현재 중국의 종교정책으로 보아서 이곳에서 크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5. 교회개척에 따른 계획

우선 창립비로 장소와 약간의 시설을 위해 한화 100만원과 월간 유지비로 20만원이 소요된다. 이상과 같이 최소한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로 확대하는 방

*24 페이지에 계속



김 차 생 장로

(당회원·성경학원 원장
월간충현 편집위원)

우리말 성경 번역사

한글날이 있는 10월에 우리나라말 번역 성경의 역사를 살펴본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됐는지 또 최근에 많이 번역되어 나오는 한글 성경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 이 난을 마련했다 (편집자)

1. 한국에 처음 들어 온 성경

우리말 성경번역을 논하기 전에 중국의 성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에 중국어 성경인 신천성경(神天聖經)이 들어 왔다고 한다. 이 한문 성경은 1807년-1823년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한 라벌트 모르슨(R. Morrison)이라는 선교사가 완전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것이다. 물론 이 한문성경은 잘 번역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2. 바실 홀과 맥스웰

1816년 영국정부가 중국에 파견한 암헬스트 사절을 태운 암세스트호와 리라호의 함장은 맥스웰(Murry Maxwell)과 바실홀(Basil Hall)의 두 해군장교대령이었다. 이들은 중국에 도착하여 사절단을 내리우고 광둥에 정박하고 있는 기간에 본국 정부로부터 한국 서해안 일대를 탐사하라는 훈령을 받았다. 1816년 9월 1일 황해도, 백령도 군실, 추자도등이었는데 보지 못한 물품과 함께 한문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 문정(問情)을 위한 임무를 띠고서 집속한 첨사(僉使) 조대복(趙大福)에게 성경을 전달하였는데, 바실 홀은 본국에 가서 1818년 "한국 서해안 항해기"를 출간하여 그 내용에서 첨사에게 전달한 성경책은 킹 제임스 대형 성경이었다고 한다.

3. 선교사로서 최초 성경을 전한 칼·구츠라프(Carl. F. A. Gutzlaff)목사

칼 구츠라프는 독일 사람으로 화란선교회의 파송을 받은 중국주재 선교사였다. 1832년 동인도회사의 용무로 중국 동북부로 가는 상인을 따라 리이스라는 선장이 지휘하는 로드 암허스트라는 영국 화물선을

타고 군산만 고래도에 상륙하여 40일간 전도하면서 다량의 한문성경을 전하였다. 그는 특히 순조대왕에게 성경 두권을 헌상하였고 충청도 서해안에 있는 원산도를 방문했을 때는 깃발에다 한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큰 글자를 써서 주민들을 모으려 하여 복음을 전했다. 또한 구츠라프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주기도문을 한문을 써서 가르치기도 한글을 미리 배워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곧 우리말 성경번역의 시작이었다.

4.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Roberet Jermain Thomas) 목사

구츠라프가 한국을 다녀간 후 33년 동안이나 선교 선교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다가 1866년 영국 선교사 토마스목사가 나타났다. 그는첫번에는대원군의병영고난 박해로피해를본김자평(金子平)을 만나 안배를 맡으며 황해도 백령도에 상륙하여 두달동안 있으면서 주민들과 서로 사귀며 한국말로 배우며 한문 성경과 종교서적을 나누어 주었다.

두번째는 평양 대동강위에서 성경을 뿌리며 전도하다가 순교하였다. 그때 그가 타고 온 배는 석만호로 토마스목사가 순교했던 장사로에서 그가 전해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어린 홍신길(洪信吉), 석호정에게 성경을 받은 김영섭(金永燮), 김종권(金宗權)만경대에서 성경을 받은 최치량(崔致良)이었는데, 후일에 그들은 강서와 평양교회의 창설자가 되었다. 토마스목사를 죽이려했던 박춘권(朴春權)은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백지로 사용했던 박영식(朴永植)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넬다리골"교회가 되었다.

1867년 중국 상동성 주재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 윌리엄스(Alexander Williamson)은 토마스목사 순교

후에 한국선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주 순회전도를 시작하여 고려문에 와서 많은 한국사람들에게 값을 치루워야 귀한 줄 알기때문에 성경을 팔았다고 한다.

5. 존 로스(John Ross)목사와 존 맥킨타이어

(John McIntyre)목사

1872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에서 온 존 로스목사와 그의 매부인 존 맥킨타이어목사 두분이 만주에 파송받아 우장이라는 곳에서 개척전도를 했다. 이들은 그곳에서 중국인을 상대하여 전도하는 중에 한국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873년에 그들은 한국인들을 만나기 위하여 고려문에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해 봄에 다시 와서 전도하는 중에, 의주 지방 청년들인 학자 이응찬(李應贊), 이성하(李成夏) 백흥준(白興俊), 김진기(金鎭基) 네사람을 만났다. 선교사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예수를 믿게되고 맥킨타이어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무렵 서상륜(徐相倫)이 우장에 기울어진 가세를 돕기 위하여 매약상인이 된 그는 네 청년들과 동향이었다. 우장에 와서 장질부사로 고생을 하던 중 선교사의 주선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두 선교사들의 지극한 간호와 기도로 완쾌되었고 그들의 전도로 세례를 받았으며 선교사들과 성경번역과 인쇄에 전력을 다하였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주선으로 인쇄소를 차리고 1882년 가을에는 최초의 북쪽을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인쇄했다. 1883년에는 마태, 마가, 사도행전이 인쇄되었고 1887년에는 신약성경 전부가 인쇄되어 "예수성경전서"라는 이름으로 3000부를 출판했다.

6. 성경반포와 교회설립

성경을 만주 서간도에 사는 한국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므로 1884년에 로스목사와 맥킨타이어목사는 75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서간도 한국인 촌에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처럼 성경번역과 인쇄하는 일이 순조롭게 되자 로스목사는 성경번역사업을 도와준 서상륜을 한국으로 파송하였다. 서상륜은 성경을 등에 짊어지고 만주 봉천을 떠난 일주일만에 고려문에 도착 하였으나 한국인이 이곳을 통과할 때는 검문을 당하게 되므로 발각되어 별정소(別定所)에 구금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서상륜의 먼 친척인 김효순(金孝淳) 김천련(金天連)이 관리로 있어서 밤에 몰래 빼내어 그들이 구해준 말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와 전도한지 반년이 못되어 수십명의 신자들이 서상륜의 집에 모여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실상 이것이 한국의 맨처음 교회이었다. 그러나 의주에서 전도의 이 소문이 퍼져 곧관해짐으로 삼촌이 살고 있는 황해도 송천으로 이사하였다. 이곳에 와서도 열십으로 전도하니 얼마안가서 그 마을의 53세대중 50세대를 전도하여 성공을 하였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 한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전도에 나섰으며 1885년에는 순전히 자신들의 힘으로 여덟칸의 예배당 건축을 완공 하였다.

그후에 만주 봉천에 있는 로스목사로부터 보내온 6000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인천(靑島)에서 받아 서상륜, 백흥준, 이성하등 한국의 최초의 전도자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7. 이수정(李樹廷)과 성경번역사업

1882년 한국정부의 고관으로 알려진 이수정이 일본에 건너가게 되어 그 유명한 쓰다(津田仙)박사를 만날기회를 가졌다. 이수정이가 쓰다박사의 집을 방문하였을때 벽에 걸린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을 기록한 족자를 읽고 큰 감동을 받게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주재 미국성서공회 총무인 헨리 루미스(Henry Loomis)목사는 이수정을 찾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수정은 1883년 4월 신약성경을 완역하였고 그때 일본에 와있는 미국장로교회 선교사 녹스(George W. Knox)목사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Robert S. Maclay)목사와 친숙해져, 그들을 통하여 한국에는 조속히 선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미국교회에 호소하였다.

한국주재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과 두사람이 한국으로 오는 도상에 일본 동경에 들렀을때 마침 이수정이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얻을 수 있어 이를 손에 들고 입국했다.

8. 험번박사가 성경공동위원회 구성

한국이 채국정책에서 벗어나 선교사들의 입국과 활발한 선교사업이 전개되자 성경번역의 시급성을 그들은 절감했으나 한국어에 익숙하기까지는 로스역과 이수정역을 사용했다.

1887년 험번박사의 노력에 의해 당시 번역된 성경을 한테모아 더 좋은 번역을 내놓기 위해 주한선교자들이 서울에 모여 성서번역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조창기에는 로스역과 이수정역을 수정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후 1887년 아펜젤라가 마가복음을 1890년 대영성서공회의 요청에 의하여 언더우드 선교사가 로스역의 누가복음을 수정 출판했고, 같은해 스크랜튼선교사가 로스역의 로마서를 수정 출판했다. 1893년 당시 성서 공동위원회를 조직 언더우드 아펜젤라, 레이놀즈선교사등이 번역위원으로 수고하여 1895

년 4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1897년에는 골로새서와 베드로전후서, 1898년에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한 신약 성경전부를 간행했다. 이보다 앞서 1895년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 페릭이 요한복음을 1898년 피테스 선교사가 시편을 요약 번역했는데 최초의 구약성경 번역이다.

1900년에 신약성경 전부를 완역 감리교 출판에서 1만 2천부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일본에서 인쇄하여 국내에서 출판하고 그해 9월 9일 서울정동감리교회에서 자축예배를 보았다. 성서 공동번역위원회는 신약성경을 완역했으나 다시 부족한 점을 다시 수정하여 1906년 재수정 결정본의 공인역을 출판했으며 1908년에는 시편과 이사야서의 구약성경 일부를 출판하게 되었다. 한국어 성경번역이 시작된지 20년, 성서공동위원회가 발족한지 10여년만에 완역을 보아, 다시 개역성경전서가 출판될때 까지 30여년간 사용하였다.

9. 성서개역 위원회 구성

그후 성경공동위원회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서개역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곧 개역에 착수했다. 개역성경이 출현하기까지는 26년만인 1937년 9월 22일 신구약성경이 완성되었다. 그동안 번역위원들은 일제하에서 서울 지리산동 전국 각 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였다. 같은해 12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1938년 5월에 신약성경이 출판되어 이 개역성경이 일제 말기를 지나 8.15해방을 거쳐 한국교회의 공인성경으로 읽혔다.

10. 해방후에 개역성경을 새 철자법으로 고쳐,

1945년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외국의 문화가 물결처럼 밀려오고 언어와 사고 풍속이 변하게 되었다. 정부와 학교는 새로운 한글 철자법 사용을 결의하게 되었다.

1950년에 한글판 성경전서가 출판되었는데 한글성경에만 사용되는 성서체라는 특별한 문체와 문법을 창안하였다. 이때까지 한국성서번역은 보수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번역을 하였고 자유주의 신학의 세력이 강하게 자라지 못하던 때였다.

11. 대한성서공회에서 신약성서 새번역 착수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교파가 분립되고 신학교가 분립되자 기다렸다는듯이 성서사역이 나왔다. 그 예로 1957년 기독교계 창간호에 박창환목사의 예배소서 사역이, 김정준목사의 시편사역이 기고되었다. 그리고 1957년 5월에 재경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복음동지회에서 성경번역의 필요성을 느껴 박대선, 김정준, 이여진, 정경연, 문익환, 김철손, 박창환, 김용옥, 장하구, 변홍규, 박안련, 지동식, 성용범, 김찬국 제씨로 번역위원회를 시작했으나 도중에 박안련, 변홍규 양씨의 심

한 견해차로 중단된 편도 하였다. 그후 위원회를 축소하여 김철손, 문익환, 장하구 제씨가 1961년 1월에 마태복음 사역을 내 놓게 되었다. 동시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글을 흡수하여 새번역을 착수하기에 이르러 4년만인 1967년 12월 크리스마스를 기해 그 말썽많은 새번역 신약성경을 시판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59년 6월 10일 천주교 한 바오로 신부가 4복음서를 번역 현재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연세대 창립80주년 기념 논문집에 고병여 교수의 로마서 사역이 1968년 천주교의 김창수씨가 독자 사역을 내놓아 현재 카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12. 신·구교 공동번역 착수

오늘날 WCC는 교회 일치 운동으로 신·구교 일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발이 움직이고 있는데 때를 같이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구약성경에 대한 새번역을 로마 교황청의 동의 받고 한국카톨릭교회와의 공동으로 번역하기에 합의하였다.

1967년 12월 1일 대한성서공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김주병 총무는 성서 번역을 천주교와 힘을 합하여 각 민족에게 통일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 공동번역사업은 젊은이들을 표준으로 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1977년 부활절에 성서란 이름에 부제로(공동번역)이라 했으며 외경포함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학자들이 번역에 수고하였다는데는 인정하지만 공동번역 내용은 자유주의 신학적이고 용어가 법신적이고, 세속적인 용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이 아닌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은 용납 못할 일이다.

그리고 카톨릭의 우상숭배적인 비신앙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보수주의 교회는 이 공동 번역을 절대로 금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서공회의 무책임한 행동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13. 신약 "현대인의 성경"

생명의 말씀사의 주관으로 아무래도 전도용 성경을 출판할 목적으로 보수주의 목사들로 구성된 박희천, 이순한, 조중훈, 최낙재 목사들이 중심이 되어 영어판 리빙 바이블(Living bible)을 참고로 하여 원문대조하여 출간하였다. 이 성경이 군대, 학생들에게 배부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이모양 저모양으로 초대 선교사로서의 손을 거쳐 우여곡절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63 : 1~2

성소를 향한 간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부르짖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했다. 인간은 잘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쉬우나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심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처지를 간구하기를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몸에 쓸 것이 떨어진 물이 없는 곳, 곤고하고 가난에 빠진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 내 인격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를 바라보며 주를 갈망하고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고 한다.

광야에 쫓기어 다니는 다윗왕은 인간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받을 길이 끊어지고 인간의 위로를 가지고는 이 마음의 고통, 몸의 위협과 궁핍을 면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쫓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찬송하고 사모하는 신앙으로 간절히 매달렸으니 어려울 때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깨끗한 삶을 살았다.

시 63 : 3~7

밤중에도 찬송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세상의 지위, 지식, 돈 귀하지만 생명보다 귀하지는 못하다. 다윗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주의 인자하심은 육신의 생명에 비교할 바가 아닌 귀한 것이다. 이것을 안 자는 지위, 재산, 생명

까지 무릅쓰고 진리를 지킨다. 하나님의 인자를 헐어 버리지 않고 누리려고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진리의 교훈을 지키려면 애쓰는 희생은 하나님의 인자가 육신의 생명과 비길 정도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세상 어느곳에서나 평생 어떠한 처지에 서나 주를 찬송하는 생활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침상에서, 꿈에서도 찬송하며 앞이 안보이는 캄캄한 밤중에도 주를 묵상하다가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였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시었고, 광야에 몸이 있었으나 인자하심의 날개 속에 안기워 있었기에 찬송을 하였으니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합시다.

시 63 : 8~11

성도의 예언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나의 영혼이 지금 주를 가까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 권능의 주님께 불드심을 알고 있으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지마는, 까닭없이 죄 없는 나를 죽이려고 잔편을 쓰며, 거짓을 말하며, 발악을 하는 저 무리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실패한 터인데, 장례할 자가 없어서 짐승의 밥이 되고 말겠구나.

다윗왕은 하나님을 즐거워 하니 땅위에서도 자랑할 것이 반드시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 주는 날이 올터이지만 거짓말 하는 자들은 아주 꺾어지는 날 유구무언(有口無言)의 때가 오고야 말겠다고 예언을 한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끝까지 회개 못하면 장례 못할 죽임을 육신이 당하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탁하며 꿈에도 찬송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자함을 입어 세상에서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다가 죽는 날 천국에 가서 길이 사시는 삶을 살시다.

실천한다는 것

이 형 수

예수 믿는 일은 주일에만, 기도드릴 때만, 성경을 읽을 때만, 교회행사에 참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수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약점이 많고 의지력이 약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많은 경우에 실패를 하게 된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인것 같다. 이는 이전에 우리의 해오던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 실천의 문제가 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가능한 조그마한 일에서 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식을 쌓고 높은 자위를 얻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좋고, 큰 꿈을 위해 하나님의 눈 살짝 가리우고 열심히 고지를 향해 뛰는 것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있지나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은, 또 바람직한 크리스찬의 생활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 놓은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자신의 처한 입장을 인정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실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람은 바로 오늘의 연결이기에 말이다.

세계적인 교리와 소위 열기 뿜어대는 부흥사의 열변보다도 주안에서 평범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름없는 사람의 생활 이야기가 더 깊게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은 자기자신이 겪은 솔직한 사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많은 불신자들은 우리의 믿음보다는 우리의 실천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찬송가 감상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새 573)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흔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 하도다

이 찬송은 추수 감사절을 기하여 널리 불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다. 우리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넓은 들에 출렁이는 자연의 수확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 이 찬송에서 우리는 영적인 수확이 있음을 연상하면서 불러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므로 많은 무리들이 주를 따랐다”는 말씀을 보게 된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서는...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 9:37-38) 고 분부하셨다.

황금 들에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그 마음이 얼마나 벅차겠는가?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불러야 할 것이다. 노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수확, 이러한 수확을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태양과 풍기와 비를 주셔서 자라게 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로 불러야 하겠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낮을 기다리도다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추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쟁기를 주셨을 때에 어서 추수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송인지 모른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되다니...

이 곡은 존 톰프슨(1782-1818)에 의하여 쓰여졌는데 3/4박자의 곡으로 마치 곡식이 바람에 출렁이는 것과 같은 기분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곡을 우리가 부를 때는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개 회중들은 이 곡을 느리게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세맛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작곡자(J. B. O. Clemm)도 그런 의미에서 “빠르게” 불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곡은 부를 때는 좀 더 생동감 있게 부르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김 하 진 목사 (성경학원·성가부지도)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의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9월에 들어온 도서 -

I 구입도서

1. 조직신학

- 1) 내세론, 핸드릭슨, 윌럼지움, 오성종 옮김,
새순출판사, 1979, 286 p.
- 2) 종말론, L. 뵈클지움, 고영민지움, 기독교문
사, 1979, 210 p.

2. 기독교 윤리학

- 1) 스위스 산골마을의 용감한 사람들, 존, 파트
리시아지움, 권달현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79, 324 p.
- 2) 뒤늦게 알게된 주님의 사랑, 단돌프, 조이스
지움, 김의자 옮김, 보이스사, 1979, 420 p.
- 3) 자녀혼계와 사랑, 뉘슨, 제임스 지움, 양은
순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79, 282 p.

3. 설교 및 묵회학

- 1) 젊은 이들에게, 박조준지움, 기독교문사,
1979, 327 p.
- 2) 내 몸을 불살라, 박조준지움, 기독교문사,
1979, 325 p.
- 3) 스필존의 설교노트, 풀러, 데이빈 지움, 김
영태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79.
- 4) 웨퍼의 명설교, 웨퍼, 프란시스 지움, 전호
진 옮김, 생명의 말씀사, 1978, 299 p.
- 5) 묵회학원론, 투젠나이젠, 에드워드 지움, 박
근원 옮김, 성서교재간행사, 1979.
- 6) 완전한 남성, 펜슨, 댄지움, 권명달 옮김,
보이스사, 1979, 458 p.

4. 사전류

- 1) 성서대백과사전 V 2, 정인찬 편, 기독지혜사,
1979, 970 p.

II 기증도서

- 1) 만국통감, BAIRD, W. M. 지움, 평양신학
교, 1912, 120 p. <고서>
- 2) 여러어진 그리스도인의 사적, 윌리엄 옮김
<미>, 조선 예수교서회, 1922, <고서>
- 3) 로마서인주석, W. Murihead, H. C. Dubose
C. J. Vosecamp 공저 동양서원 간행, 1912,
<고서>

팀 라헤이 저 생명의 말씀사

성령과 기질

4×6판 · 176 페이지 · 650원

저자는 책을 씀에 있어서 사람은 타인과 구별
되는 특징으로서 천태만상의 타고난 기질이 있
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서 행동이 좌우되고 잘
훈련되거나 조절되지 못하면 인품에 비정상화가
오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이
기질을 잘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하여 말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인간의 근본적 타고난 기질로서
첫째, 유전적 잠재력을 타고난 본능 즉 유전학
적 기질(Temperament) 둘째 훈련, 교육, 근본
적 태도, 신앙이 앞에서 말하는 유전학적 기질
에 가미되어 나타나는 성격(Charater) 셋째 실
제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고 자신이 생각하는 당
위성 기준으로 행동하는 인격(Personality), 이
상 세가지로 구분하여 기질을 말하고 있다. 다
시금 기질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네가지로 구분하여 장점과 단점을 열거하고 단
점은 성령님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계속하여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말하고 실생활에 나타남을 이야기 한다. 성령님
이 역사하지 않는 자의 생활도 보여주며 생활
의 치료법을 다시금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렇게
하여 마지막 12장에 변화된 기질로서 마무리 짓
는 책이다. 특별히 각 장마다 그림을 삽입하여
설명하는 점이 책의 특징이다.

저자는 책의 서문에 목사며 상담심리 학자였던
헨리·브란트(Henry Brant) 박사와 노르웨이 신
학자인 오·할레스비(O. Hallesby) 박사의 저서
“기질과 그리스도인의 신앙(Temperament and
the Christian Faith)에서 도움을 받고 책의 여러
기질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고 말하므로 주관적
견해에서 책을 기술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
다. 특히 책의 내용을 존·매디나(John Medina)
의 그림으로 설명한다. 책의 여러 곳에 성경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라기 보다는 쉽게 자신의 성격을
돌아볼 수 있는 책으로 한 번쯤 읽어 봄으로 자
신을 비교하여 보면 바람직 하겠다.

좋은 책이다.

김 양 래 전도사(유년부 부지도)

기독교의 도덕적이상

김 하 진 목사

(성경학원 · 성가부지도)

기독교에 있어서 궁극적인 도덕적 이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땅위에 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②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이번 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문제에 관해서만 다루어 보고자 한다.

I. 사랑의 실천

기독교적 사랑(agape)이란 예수님의 윤리적 교훈의 초점이요, 또한 정점이었다. 사랑은 모든 제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막12:28) ①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②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랑은 크리스찬의 도덕생활에 있어서 중심적 사상이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사랑이란 에로스(eros)나 필리아(philia)와 같은 인간적이며, 다분히 타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비타산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될 때 이 사회는 보다 밝고 아름다운 사회, 인간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1. 사랑의 성질과 의의

사랑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 자신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대상과는 관계없는 사랑, 구하는 사랑, 혹은 주는 사랑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랑 가운데 어떤 성질의 것이 기독교 사랑일까? 이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 줄 안다.

기독교 사랑에 대한 근본문제는 그 가운데 욕구적, 혹은 이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일 것이다.

어거스틴(Augustine)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랑이란 우리가 현재 갖지 아니한 그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환희에 대한 욕구라든지, 어떤 복리에 대한 욕구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제일의 기초적, 본질적 현상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다 피조물인 동시에 유한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으로 충족치 못한 것을 욕구하게 되는데 이 욕구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사랑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보아 도덕적으로 중성적이어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나 이것이 향하는 그 대상을 떠나 혹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대상이 인간 위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거기 대한 사랑은 선이 되겠으나 만일 그 대상이 우리 인간 아래 있어서 우리 존재에 무엇을 더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어떤 항구적인 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 대한 사랑은 거짓이요, 악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랑이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어거스틴(Augustine)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과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독교 사랑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실재적 요소라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랑은 아가페(Agape)적 사랑이며 이 사랑은 상대의 공취에 관계없이 순전히 주는 사랑임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가페(Agape) 사랑은 순수하게 주는 사랑으로 어떤 종류의 욕구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랑을 말한다!

2. 사랑의 원칙

사랑은 신약에 가르친 여러가지 의무와 미덕의 절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는 사랑의 윤리이며, 민주윤리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마 12:30-31, 눅 10:27)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랑의 원칙을 찾아 볼 수 있고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나”(마 12:33)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눅 10:28)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

어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비유로 들어 교훈하셨다.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나 다 죽게된 자를 보고 제사장, 레위인은 그대로 지나쳐 버렸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발견했을 때 ① “그를 붙잡혀 여기고”(눅 10:33), ② “베리고 가서 잘 돌보아 주고”(눅 10:34) ③ “자비를 베풀었다.”(눅 10:37)고 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선한 일을 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이웃 관계가 성립됨을 교훈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 안에 도덕생활의 전체가 요약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이를 행하는 곳에 영생이 있음을 친히 교훈하셨다.

바울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사랑을 완전한 생활의 곧(결속물)으로서 여기에 미덕이 있음을 말했다. 바울이 고전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 하면서도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선언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야고보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법칙이라 선언했고(약 2:8) 사도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사랑이란 신약에 있어서 인간도덕의 가장 위대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장 깊은 속성이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근본적인 지도 원리가 “사랑”(Agape)인것 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왜 그런가? 이 사랑이 있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이다. (갈 5:14, 롬3:8-10, 골3:14, 요일 3:13-18, 4:8-16, 4:20참조)

3. 기독교 사랑의 특성

사랑이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므로 이론적인 정립보다는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 | | |
|-------------------|-----------------|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 Ⅱ. 하나님나라 형성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 8. 생활속의 윤리 |
| 3. 신약의 윤리관 | Ⅰ. 결혼과 가정·이혼문제 |
| Ⅰ. 신약의 도덕적 이상 | Ⅱ. 경제와 윤리 |
| Ⅱ.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9. 사회속의 윤리 |
| 4. 인간과 윤리 | Ⅰ. 기독교와 인종문제 |
| 5. 초대 교회의 윤리적 배경 | Ⅱ. 국제질서, 전쟁, 평화 |
| 7.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 Ⅲ. 기독교 윤리와 문화 |
| Ⅰ. 사랑의 실천 | |

사랑, 체험해야 하며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타인에게 보여질 때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의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기독교 사랑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기독교 사랑이 가진 독특한 특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줄 안다.

① 기독교 사랑은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아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 사랑(agape)의 관념은 “자연발생의 정서가 아니라, 의지로 인하여 결정된 품성(character)의 표현이다”(B. F. Westcott)고 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요, 자기 중심의 욕망인 감정과는 정 반대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기 생명의 최고 표현인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적일 수 없고 관대하며, 인내하고, 온유, 겸손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사랑에만 국한되어 있는 특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기독교 사랑에 있어서 이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사랑에 있어 가장 독특한 특성은 무엇일까?

②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신앙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고 내용으로 하는 신앙, 즉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하심을 통하여 나타난 바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은 기독교 신앙은 아가페(agape)적인 기독교 사랑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사랑에 선행해야 하고 이 기독교 사랑의 실천은 항상 이 신앙으로라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열매 없는 과실나무에 불과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의한 헌신적인 생활을 통하여 정신적이며,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변화와 기적을 낳아야 할 것이다. (*)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

1. 동부 티모르교회를 위해 바자회를 실시하여 이익금 약 1,000불과 의류 15상자(홍콩 교회에서)를 우송함.
2. 한국과 인도네시아교회 공동주최로 제 2회 복음주의 연합대회를 실시하여 개척자 파송을 결의함. (1인당 월 100불 선교비 소요). 서선교사는 고문으로 주대.
3. 중부자바지역에 개척지 교회건축 기공예배를 드림. (장년 40명, 대지 302m²)
4. 개척지 두 교회에서 합동세례식(48명)
5. 새 개척지 창립예배를 9월 25일 드림
6. 따와망우신학교 특별집회인도(신학생 180명)
7. 개척지 소식
 - ① 뽀데얌지역(수교요전도사) 1명 결신
 - ② 뿌충지역(요나단전도사) 1명 결신
 - ③ 배갈웨로지역(지야꾸스마전도사) 2명 결신

* 기도 제목 *

1. 비자 만료되는 인도네시아의 정글선교의 계속을 위하여
2. 서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위하여

홍 콩 - 홍 종 만 선교사

1. 지하철공사 취업중인 한인 환영예배 및 주1회 성경공부 실시
2. 사모님 건강치료 및 가정관리상 일시 귀국중
3. 마카오지역 개척교회 설립 및 월남피난민 전도에 대해 협의, 월남피난민을 위한 구제선물 보냄(17만원 상당)
4. 본국의 수해어린이들에게 학용품 보냄.
5. 중국대륙에 거주하는 한인 성도들에게 성경 및 찬송을 계속 보냄

* 기도 제목 *

1. 마카오지역 개척교회 설립을 위하여
2. 홍선교사님 가족을 위하여

애 굽 - 김 신 숙 선교사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여 선교사로 정식 임명.
2. 신학교 도서관에 제력스기계(미화2,400불)를 기증함.
3. 고 이연호 선교사의 기념문고를 설치
4. 카이로 한인연합교회 예배 인도
5.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 개학(10월10일) 함에 따라 도서관에서 정상 근무중임.

* 기도 제목 *

1. 여 선교사님에게 영력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2.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 독 - 육 호 기 선교사

1. 하나우한인교회에서 축호전도실시(9명결신)
2. 뽀즈부룩 한인교회에서 새신자 가정집방 실시 및 축호전도 실시(6명) 그리고 구역예배를 매주 목요일 드리기로 함.



중부자바지역 교회건축 기공식 예배후 (우측 맨끝이 서선교사님)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3. 비스바덴 한인교회에서 전도실시 (결신 2명) 본교회 교사 남해순양 에펜겐신학교에 입학하여 수업 중.
4. 추계 대심방 실시 예정.
첫째주, 둘째주 - 뷔츠부룩 한인교회
셋째주 - 하나우 한인교회
넷째주 - 비스바덴 한인교회

* 기도 제목 *

1. 선교사님의 심신의 건강과 장거리 교통 안전을 위하여
2. 세 교회 부흥을 위하여

호 주 - 김 태 현 선교사

* 기도 제목 *

1. 멀버른 한인교회 부흥을 위하여
2. 김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 백 성 룡 선교사

1. 7월 22일 재아 중앙교회 담임목사 부임
2. 7월31일~8월16일 대심방 실시 (84세대)
3. 8월19일 성례식 거행
4. 8월 29일~9월 4일 선교여행중이신 김창인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실시
5. 김창인 목사님을 모시고 8월31일 교적자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선교활동 현황에 대해 청취함. (북한선교현금 미화 8,593불)

* 기도 제목 *

1. 재아 중앙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백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하여

일 본 -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

1. 새벽기도 및 매주일 예배 인도
2. 9월 16일 인접 대수교회와 합동으로 야외예배 실시
3. 병원전도 열매인 송전간호원, 중천기사 그리고 권여사 계속 교회출석 잘함
4. 대합실 전도 입원환자 전도 등 실시

* 기도 제목 *

1. 전도결신자인 당원씨, 반목부인 등 교회 출석 잘하도록
2. 유선교사님 내외분께 전도의 능력을 계속 주십시오

서 독 - 박 용 삼 평신도 선교사

박사학위 논문과정을 위해 힘쓰고 계심

* 기도 제목 *

1. 모든 연구과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2. 선교사님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 15페이지에서 계속 *

향으로 하며 월간 보조를 3년 기한으로 하여 자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중국인 영업택 목사님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였다. 또한 위에 말한 월간 유지비는 그 중에 사례비가 거의 없는 것은 현재 뜻을 가진 목사님이 계시며 그 분에게는 거의 사례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영업사님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우리 중현교회나 한국교회가 이 전부를 부담하면 더욱 좋을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여 일부를 부담할 경우 나머지는 홍콩한인교회에서 담당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본토 선교를 위한 기지가 되는 마카오에 교회를 세우는데 한국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앞장서야 되겠다.

9 월중 새 교우명단

모 범 답 안

번호	정	답	번호	정	답
1		○	36		흑암, 빛
2		피난처	37		성도의 죽는 것
3		라	38		그인자하심은영원하다
4		교 훈	39		라
5		다	40		22부 176절
6		가	41		다
7		81 : 10	42		119 : 33
8		7월 1일	43		깨닫게, 배우게
9		고난, 시험	44		다
10		요 10 : 34	45		126 : 5
11		81 : 10	46		라
12		마	47		26번
13		가	48		나
14		다	49		가
15		라	50		나
16		나	51		다
17		주, 다윗	52		마
18		7	53		가
19		나	54		나
20		피난처 요새	55		라
21		간구하는 자	56		겸손한, 악인
22		그리스도와 연합한것	57		147 : 17
23		다	58		나
24		×	59		다
25		나	60		라
26		다	61		다
27		히 1 : 10	62		여호와를 공경함
28		라	63		나
29		다	64		지혜
30		라	65		라
31		×	66		교회
32		○	67		미련한 자
33		109 : 4	68		14 : 13
34		○	69		나
35		라	70		기 도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 지구

암사 구역 홍민윤 강남구 암사동 암사아파트 25동 107
 담십리구역 정진국 동대문구 담십리동 27의 2호, 13동 2번
 쌍림①구역 김북희 중구 장충동 2가 146의 4
 송정 구역 김혜경 성동구 은자동 48의 35, 30동 7번
 이문 구역 이미현 동대문구 이문동 219의 36
 휘경 구역 심경례 동대문구 휘경동 173의 18 14동 1번
 행당 구역 지윤심 성동구 행당 1동 130의 74, 23동 3번
 행당 구역 전영식 동대문구 전농 1동 335의 13, 32동 6번
 전농 구역 박정숙 성동구 행당동 317-884, 15동 8번
 행당 구역 이기자 동대문구 망우 2동 457-10
 담십리구역 정영옥 동대문구 담십리 80-14, 6동 3번
 왕십리구역 윤지원 중구 신당 7동 469, 10동 1번
 응인②구역 김진희 중구 황학동 162, 15동 2번
 천호 구역 김보영 강남구 천호동 223의 23, 6동 3번
 천호 구역 최미자 강남구 성내동 1가 214
 풍납 구역 오정숙 강남구 풍납동 357의 14
 왕십리구역 김춘배 성동구 하왕십리 2동 1024의 1 27동 1번
 마장 구역 이인자 성동구 마장동 519의 4 16동 3번

○ 3 지구

화양 구역 권혜연 성동구 화양동 15번지 19호
 장중③구역 최정숙 중구 정충동 2가 193 -36
 장중④구역 박석순 중구 목정동 18-27

○ 4 지구

시흥구역 전상남 영등포구 독산 3동 44번지 5호 13동 8번
 인현①구역 민옥자 중구 충무로 4가 147, 10동 4번
 염리 구역 한정희 마포구 염리동 36-98
 마포 구역 천세진 마포구 신공덕동 1번지 26호, 3동 2번
 인현①구역 원정옥 중구 충무로 3가 37-1
 대방 구역 박영숙 관악구 신대방동 344의 144
 필동②구역 김기훈 중구 필동 2가 119호, 3동 2번
 사당 구역 이영혜 관악구 사당동 257의 17호
 반포②구역 변재연 강남구 반포동 신반포 2지구 아파트 110
 신림①구역 백미희 관악구 신림 2동 233-11, 8동 7번

○ 5 지구

남가좌구역 이희문 서대문구 수색 205 번지 1426
 화곡②구역 박영숙 강서구 목동 324-18 16동 2번

해화 구역 감지나 종로구 해화동 2가 80-2, 6동2반
 화곡②구역 감만성 강서구 화곡3동 주공아파트 6동 508호
 북가좌구역 김이호 서대문구 홍은동 401-23 18동5반
 청운 구역 이연숙 종로구 신영동 235-70, 13동6반
 종로 구역 조순환 종로구 봉익동 35-2
 중부 구역 김종홍 중구 중부시장 4공구13동 3층 261호
 구로 구역 김인숙 영등포 신도림동 439-68, 1동2반
 초동 구역 김경자 중구 인현동 1가 100번지 4호
 청운 구역 오옥남 종로구 청운동 청운아파트 1동 109호
 홍제 구역 김숙자 서대문구 홍은동 11-111, 11동3반
 북가좌구역 김인숙 서대문구 홍은3동 338-121 25동 5반

* 위로해드립니다 (9월중 별세)

- 하현국씨(보문구역) 11일 별세, 13일 장례
- 김선영씨(삼양③구역) 11일 별세, 13일 장례

* 권찰수첩 ⑨ *

구역집회를 인도하는 요령

구역집회는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간 중현지에 발표한 바 있는 예배 모범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인도함이 좋을 것이다.

1. 사회자. 구역장이 사회를 하되 1부예배는 묵기도로 시작하여 성시는 한절이나 두절, 간구는 2분이내로 해야한다. 찬송은 공과내용에 맞는 대중적인 것으로 2,3곡만 부르자 하고 1부예배는 주기도로 마치고 2부순서는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며 이웃에게 덕이 되도록 지혜롭게 인도해야 한다.
2. 기도자. 공중을 위한 대표기도는 5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개의 경우 사회자의 간구(2분이내) 대표기도(5분이내) 그리고 2부순서에 읽기 쉬운 석기도(2분이내)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세번이나 길게 되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참석자들이 지루감과 권태감을 느껴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의 의욕을 잃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이던 구역집회가 점점 수효가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침내 문을 닫게 된다.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3. 설교자(강사) 예배와 성경공부를 별도로 하던지 같이 하던지 공과와 내용을 충분히 알기

* 축하합니다 (9월중 결혼)

- 장태윤군 (장창수씨 2남, 방배구역)과 나경자양 (이순자 권사 손녀, 상도①구역) / 3일 행복예식장에서
- 김창만군 (김영화권사 4남) / 6일 본 교회당에서
- 정희영군 (김의순집사 장남) / 8일, 본 교회당에서
- 노병숙양 (노문환집사 동생) / 15일, 본 교회당에서
- 최인기군 (김영희 권사 아들) / 20일, 본 교회당에서
- 오현구군 (오승률 장로, 유미희 권사 장남) / 22일 본 교회당
- 이영균군 (이희전집사, 나화봉권사 아들) / 22일, YWCA에서
- 조인식군 (조영문씨 아들)과 한연수양 (한인석씨 딸) / 24일,
- 최광성군 (김은애권사 아들) / 24일, 영민관에서
- 장은숙양 (새신자부) / 25일, 본교회당에서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 회장)

위하여 예비 공부 시간에 꼭 참석해야 되며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함입하여 지혜롭게 전달할 때 참석한 분들에게 은혜가 된다. 설교나 강의시간 전체를 30분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4. 장소문제. 각 구역원의 가정을 윤번으로 돌아가면서 모이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의치 못할 경우 원하는 가정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그것도 불가능할 때는 어느 일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모일 수도 있을 것이다.

5. 시간문제. 밤에 모일 때는 시작하는 시간을 교회의 예배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예배와 공부 그리고 찬교시간 전체를 합쳐서 1시간 30분을 넘지 않도록 함이 좋다.

낮에 모이는 구역에서도 1시간 30분 이내로 끝내야 한다. 시간이 짧을수록 인기가 있고 성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는 수가 많은 것이다.

6. 친교시간. 예수님의 성례전을 엄두에 두고 구역장이 이 시간을 지혜롭게 인도하면 흥미있고 유익한 모임이 될 것이다. 그 가정 석구들을 소개하고 특별찬송이나 혹은 신앙간증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세속적인 오락(화투, 카드, 율놀이 등)은 마땅히 삼가야 하고 성경 퀴즈대회 찬송 부르기대회 성경 암송대회와 같은 전전하고 다양한 오락 순서를 모일 때마다, 한가지씩만 변화성있게 진행한다면 화기애애하고 즐거움이 넘칠 것이며 성도간의 믿음의 친교도 더욱 튼튼하게 다져 질 것이다.

제27과 축복과 저주

읽을말씀 : 신28 : 1-68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받게 될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받을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1.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1-14)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의 축복을 받을 유일한 길이다.

(1) 축복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

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 13) —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확히 알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1, 2, 9, 13) —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만 행할뿐 아니라 모두 지키며 끝까지 행해야 한다.

③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해야 한다. (14) — 하나님을 떠나 미신이나 신성모독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 잡신들을 좇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다.

(2) 축복의 범위

① 장소 — 어디서든지 (3절) 어디가든지 (6절)

② 가문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그 몸의 소생을 무수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다. (4, 11절)

③ 물질 — 토지의 소산과 육축의 새끼로 많게 하신다. (4, 5, 11절)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신다. (12절)

④ 매사에 성공 —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사 성공케 하신다. (8, 12)

⑤ 명예를 얻는다 —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1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13절)

⑥ 대적들에게서 승리 —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번성케 하신다. (7절)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애호를 받는 가장 빼어나고 영화스러운 백성임을 세계 만민이 보고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해 아래서 가장 복된 백성임을 의심할 나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땅위에서 그들의 위대함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머지않아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영광스런 자리에 서게 된다.

2.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15-68)

(1) 저주 받는 이유

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 (15절) —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등의 주의할 가치가 없고, 혹은 그 분에 대한 의무는 조금도 없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기를 거부하므로 저주를 받음.

② 하나님의 제명들을 행하지 않음 (15장) —

③ 하나님을 잊어버림 (20절) —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

(2) 저주의 범위

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 다닌다. (16절, 19절)

② 그의 소유물이 모두 저주 아래 있다. (17, 18절) — 소유한 모든 것이 그에게는 쓴 것이 되며, 그것들로 부터 진정한 안락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 가인처럼 땅으로 부터도 저주를 받는다 (23-24절, 창4:11)

③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는다. (20절)

(3) 저주의 열매

① 신체적 질병들 (21, 22, 27, 35절) — 이런 병들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죽음을 가져오는 질병들로서 죄악으로 스스로를 타락시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벌이었던 것이다.

② 기근과 양식의 결핍 — 한재와 풍재를 인하여 (22-24절) 그리고 매뚜기에 의해서 (38, 42절)

③ 대적들에게 패함 — 대적들이 그들에게 매우 잔인하게 대할 것이며 그들이 대적의 처분에 맡겨질 것이다. (25-26, 28-34, 36-37, 41절)

④ 분별력이 마비됨 — 하나님의 징계는 저들의 몸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저들의 마음을 암흑과 공포로 꽂 채우신다. 그래서 백주에도 암흑속에 있는것같이 더듬도록 하신다. (28-29절)

⑤ 소유물을 노략당한다. — 집, 포도원, 처자식까지 빼앗길 것이다. (30-33절)

⑥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리라 — 저들이 낙을 삼고 위로를 바라던 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저들 자신과 저들의 왕까지 잡혀갈 것이다. (25, 36, , 41절)

3. 맺는말

본문에서 저주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축복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보다 약 4배나 길다는 사실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 이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예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하지 않는 것을 배우자. 혹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협조하여 웅고집을 피우며 너그럽지 못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비난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의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 더 굳게 서야한다.

제28과 이스라엘 족속이 받은 축복

읽을 말씀 : 신 33 : 1 - 29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 위에 축복을 선포한다. 각 지파가 받을 축복은 곧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받을 축복이다.

1. 인간의 실패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악한 행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본장에서는 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실패, 연약죄를 보여주고 있고, 본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성, 선하심, 친절하심을 보여 주고 있다.

창세기 49장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와 그 위에 내린 심판을 말하고 있으나, 본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거기서 흘러 나오는 순수한 축복을 말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의 축복과 그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인간적 실패와 죄와 어리석음을 초월해서 있다. 그러므로 본장에서 언급되어진 축복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행위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언약 관계에서 받은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각 지파가 받은 축복

① 르우벤 - 르우벤지파의 보존을 소원하고 또 예언한다. “비록 저희가 다른 명예들을 놓쳐서 빼어난 민족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로 번성케 하소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살게하시고 두번째의 죽음은 당치말게 하소서.”

② 유다 - 이 지파의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판이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축복이다.

유다지파는 예수님이 오셨던 혈통에 속하고 높은 명예를 얻으므로 레위보다 앞서 나오고 있다. 모세는 유다지파의 크나 큰 번영을 기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가 자기 분깃을 정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사업에서 번영하시며 저로 자기 대적을 이기고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원한다.

③ 레위 - 대제사장의 직분이 언제나 저들에게 남아 있게 해 달라고 기원하며, 저들의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원한다.

④ 베냐민 - 하나님의 친근한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동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 !

⑤ 요셉 -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리고 풍부한 샘과 결실로 큰 풍요를 기원하며, 형제들 중에서의 그의 권위와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하는 큰 권세를 축복한다.

⑥ 스블론과 잇사갈 - 두 지파 모두 안락한 정착과 일자리를 가질 것과,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민족의 종교적 이익을 위해 자기의 위치에서 각각 공헌하리라고 했다.

⑦ 갓 - 갓이 그 당시 판대한 토지분배를 받았듯이 판대케 되리라고 그리고 갓은 용맹과 승리의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갓은 홀로 있을 때도 사자와 같이 견고하고 담대하며, 또한 분노를 발하면 사자처럼 팔과 정수리를 찢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⑧ 단 - 사자와 같이 용기와 결단력을 말한다. 뱀의 머리와 사자의 가슴을 지닌 저들 앞에 무엇이 설수 있겠는가 ?

⑨ 납달리 -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며,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것이다. 곧 축복의 소산물이 가득할 것을 말한다.

⑩ 아셀 - 저희 자손의 수적 증가와 저희 토지의 풍요로운 축복과, 그 형제에게 기쁨을 주며, 저들의 처지가 어떠한 간에 저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는 은혜스러이 지원해 주리라는 약속이 있다.

3. 맺는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열방의 어떤 신들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해줄 능력은 없었다.

(26절)

모든 민족은 자기 신을 자랑하였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큼 자랑할 수 있는 신은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은 그들의 놀라운 행복이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복되어서 해 아래서 저들에게 전줄 복된 민족은 아무도 없다.

어떤 민족도 그토록 안락하게 정확하게 보호받은 민족이 없었고 (27절), 저들만큼 잘 부양되고 양육받은 백성도 없었고 (27절 하), 그토록 양전하게 지켜지며 보호받은 백성은 없었고 (28절), 그리고 저들만큼 잘 공급받은 백성도 없었고 (28절 하), 저들만큼 도움을 입은 백성은 없었다. (29절)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이 저희의 팔패가 되시고, 대적을 짓밟아 버리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백성들이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행복한 자로다 ! 성도들이여 그대들 같은 자가 누구가 있겠는가 !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이중 삼중으로 복되도다.”

79 충현주교 종합행정감사

-오는 11월 4일, 주교 15부-

1979년 충현주교를 종결산 하고 새해의 행정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올해 주일학교 각부 종합행정 감사가 오는 11월 4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종합행정감사의 목적을 ① 충현주교 목표달성을 위한 방편으로서의 주교 행정의 위치를 재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주교행정 계획수립의 근거로 삼고, ② 1980년 충현주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정확한 상태파악의 기회로 삼고, ③ 충현주교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의 기회로 삼고 나아가 1980년 주교행정 실무자들에게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 자료를 삼고자 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위원장 정 상우 목사를 감사단장으로 주교 15개부를 4개반으로 나누어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한 45명의 감사위원이 각부별로 실시한 이번 감사의 감사 항목을 보면 서면조사에 의한 감사와 감사위원 확인에 의한 감사로 대별되는데 서면조사에 의한 감사는 ① 주교행정 전반, ② 학습평가 및 교사훈련,

③ 교사관리 및 교사이동, ④ 학습보조재료 및 시청각교재, ⑤ 학생훈련 및 면려회, ⑥ 비품 및 문서관리, ⑦ 재정관리 및 재정수지 등이며 감사위원 확인감사는, ① 교무처 감사대상장부, ② 생활지도처 감사대상장부, ③ 총무처 감사대상장부, ④ 학습환경(교실) 상태, ⑤ 비품 및 문서정돈상태 등이라고 한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번 종합행정 감사 실시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11월 말경에 각 부에 새해 주교 행정 지침을 하달하고 아울러 충현주교 행정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를 삼는다고 한다.

10월 주교 인사이동

• 교사임명

어새부:이미자(여) 정 교 사
임도화(여) 임시교사
고등부:안용수(남) 임시교사
김귀자(여) 임시교사

• 교사퇴임

유치부:방기영(남) 임시교사
주복순(여) 정 교 사
고등부:김복순(여) 정 교 사
데 아울러 이미 통지된 지침과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주교각부 새해 사업계획 활발

주교 각부는 요즘 새해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작업에 한참 분주한 움직임을 띠고 있다. 내일의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충현 주교의 교육계획이 하루 속히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안팎의 보이지 않는 강한 요청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부심하고 있는 것 같다.

주교 각부서가 사업계획 요령이나 예산편성 요령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틀

도 잡혀 졌다고 보여지고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주교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사업계획 과정에서 추구되어야 되리라고 보여지는 현재의 충현 주교로서는 전환점에 돌입하기 위한 몸부림과 같은 안타까움마저 느껴지게 하고 있다.

이같이 중요한 시점에 있는 충현주교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와 관심을 모아주도록 교회위원회는 부탁하고 있는

교사학생 출석동향

• 교사

9월의 교사 출석률은 93%로서 8월의 94%보다 1%가 떨어진 것이며 이는 올해의 최저의 수준이었다.

주된 원인으로는 결혼·가정사정·군 입대 등의 이유도 있지만 교사의 재적수가 485명으로 1월의 445명 보다 40명이 많아 9%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지속적인 교사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학생수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1월의 4076명에서 9월말 현재 4511명으로 435명의 증가 되었는데 이는 11%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따져볼 때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가 1월이나 9월이 모두 9명 정도로서 변함이 없다.

• 학생

연례적인 과거 출석 동향을 보면 8월 이후 9월부터는 연말까지 학생 출석률이 점차 상승되고 있는데 이같은 경향에 따라 9월 주교학생 전체 평균 출석률은 64%로 크게 신장되었다.

이같은 상승 요인으로서 주교 각부가 9월 한달동안 가을전체 학생심방을 일제히 실시한 결과 장기 결석생중 일부는 다시 참석을 하게 되고 일부는 재적처리를 하여 출석생에 대한 실제재적생 수가 감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전반적인 상승 추세 가운데서도 고등부·대학부·장년부 등은 8월보다도 오히려 출석률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원인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교사단기교육 마쳐

지난 10월 15, 16 일에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79-2 충현주교 교사단기 교육」이 「내일의 한국과 주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본 교회에서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열렸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2절을 주제성 구로, 새찬송가 465장을 주제찬송으로, 「내일의 한국을 우리의 후손에게 허락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실시된 이번 교사단기 교육에는 일일 30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사 자신들이 교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도 되었다.

강의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장 정상우 목사의 말씀이 있은 후 첫날은 총신교수 김득룡 목사가 「교수의 7단계」라는 제목으로 2시간 계속 강의를 전하였고 둘째날 첫째시간에는 주영홍 교수의 「내일의 한국과 사회교육」, 둘째 시간에는 시내서문교회의 김만우 목사의 「내일의 한국과 주교 교육」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주교 교사들이 찬양을 드리고 주일학교 대학부 학생들이 특별 출연을 하여 아름다운 성가를 들려주는 등 순서 순서마다 교사 전체가 참여하여 진행하여 대단히 활기 있어 보였다.

교육위원회는 새해에도 이같이 주교교사 단기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리라고 하는데 충현주교 교사자 질향상을 위한 장기계획을 준비하여 단계적으로 체계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교사단기 교육의 한장면〉

제 3 회

성가합창제 출연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제 3 회 성가합창제에 본 교회 연합성가대가 출연한다. 시내 영락·순복음 중앙·새문안·초동·여의도 침례·상도 성결교회 및 인천 송의감리교회 등 8 교회가 참가하여 오는 10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부터 갖게 될 이 성가합창제는 본 교회에서는 제일 성가대 45명, 2성가대 35명, 3성가대, 25명 등 100여명의 성가대를 조직하고 연습하고 있다. 제 2 성가대의 정국진선생이 지휘를, 조희영선생의 반주를 맡게 된다. 연주할 곡목은 H. R. Evans 의 「축복」과 Carl. F. Mueller 의 「내주는 강한 성」의 2 곡이다.

홍콩주재

홍종만 선교사 귀국

선교협의 및 내년 사업계획차



홍콩주재 선교사 홍종만목사가 오는 10월 29일 선교협의 및 내년도 사업계획 협의차 일시 귀국하게 된다. 오는 11월 8일에 출국 귀임할 예정으로 오게 되는 홍종

만 선교사는 금번 중국 총 주교 중국대륙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로 「한국중국교회 연구」 홍콩센터 조직, 한국교회에 중국선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월간 혹은 격월간으로 정기간행물 발행의 건, 마카오 개척교회 설립 등을 협의할 예정이고 본 교회에서 매일 저녁 중국선교 대륙상황 보고회는 가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총신대학, 각 부산지방 집회, 각 부 주교등에서 강의 및 특강등을 가질 예정이다

11 번째 선교사 파송

이 준 교 목사 이집트로

인도에도 현지인을 파송

교회는 이준교 목사를 애굽 주재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31일 저녁(예정) 파송예배를 드리고 곧 입지로 떠나도록 했다.

1968년 해외복음 선교회의 발족 이후 7명의 정식 선교사와 3명의 평신도 선교사 파송에 이은 11번째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파송은 지난 8월에 애굽 현지에서의 순직한 이연호 선교사의 후임으로 가게 됨으로 큰 의의가 있다. 이미 현지에는 고 이연호 선교사의 사모되시는 김신숙 전도사가 애굽선교사의 임명을 받아 일하고 있으므로 애굽에 2명의 선교사가 주재하게 된다.

이준교목사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등을 마치시고 이미 지난 9월 28일 임시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제 오는 10월 31일 선교사 파송예배를 마치고 곧 출국하여 입지로 떠날 이준교목사는 현지에서 한인교회와 그곳에서 원활한 선교사업에 위한 기반구축, 대원주민 전도, 나아가 아프리카와 중동 대 공산선교의 일들은 수행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에) 또한 인도인으로써 현대 우리나라의 아시아연합 신학연구원 에서 수학중인 엘리야 겔간 전도사를 우리나라가 파송하는 선교사로 본국인 인도로 파송한다. 이는 현지인을 직접 선교사로 파송하는 첫번째 시도로 큰 관심과 의의를 갖게 된다. 겔간전도사의 파송예배도 10월 31일 이준교목사의 파송예배와 같이 드려지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

이로써 우리 교회는 12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그중 1명은 순직, 1명은 철수(아르헨티나 신동수 평신도선교사) 하였다. 1968년 해외복음선교회가 발족하고 1971년 인도네시아에 서만수선교사를 파송한 이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71년 12월 서만수선교사 인도네시아에 파송

1976년 3월 유병세집사 평신도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

1976년 8월 이연호선교사의 홍해 지역에 파송

1976년 9월 홍종만선교사 홍콩에 파송

1976년 11월 신동수집사 평신도 선교사로 아르헨티나에 파송

1976년 12월 육호기선교사 서독에 파송

1977년 2월 박용삼집사 평신도 선교사로 서독에 파송

1979년 7월 백성룡선교사 아르헨티나에 파송

1799년 7월 김신숙선교사 애굽에 파송

1979년 10월 이준교선교사 애굽에 파송

1979년 10월 엘리야 겔간 전도사 교회에서 인도에 파송

성경학원 · 성가부지도

김하진 목사 임명

이준교목사가 애굽선교사로 파송됨에 따라 그동안 이준교목사가 맡았던 성경학원 지도에 김하진 목사가, 또한 김중석 목사의 도미 유학으로 공석이 된 성가부 지도도 김하진목사가 맡게 되었다.

목사 안수 · 강도사 인허

- 이승근·윤형철·김중석 강도사
김석원·남성호·유재일 전도사 -

지난 10월 16일(화) 대성교회당에서 열린 수도노회에서 본 교회의 이승근(고등부 지도), 윤형철(대학부지도), 김중석강도사(도미유학중)가 목사 안수를 유재일 전도사(산업전도 교육부 부지도)가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또한 김석원 전도사는 10월 17일 부산 노회에서 남성호전 도사는 10월 17일 수원 노회에서 각각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도미 유학중인 김중석 강도사는 귀국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10월 17일 다시 출국했다.

추계 성례식 마쳐

일년에 2차례하는 성례식중 추계 성례식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마쳤다. 10월 11, 12일분담 및 세례식을 갖고 14일 주일, 1·2·3·4부 예배시 성찬식을 가지면서 참여한 모든 교우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 것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

14일 성찬식에는 총 3,495명이 수찬했고 각 구분별 문답, 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남	여	계
학 습	56	85	141
세 례	78	148	226
유 세	35	32	67
입 교	3	7	10
개 종	1	2	3
계	147	274	447

남전도회 개척

서현교회 준공

남전도회가 지원하여 개척한 서현 교회가 지난 10월10일 교회당을 다 짓고 준공예배를 드렸다.

이 서현교회는 금년도 우리 교회의 교회 개척이 강원도를 중점으로 실시됨에 따라 남전도회가 지원하여 연초에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에 세워졌었다. 담당 교역자로 박창덕강도사를 파송하고 예배를 드리며 애쓰던 중 지난 7월 24일 예배당 공사에 착수 2개월만에 예배당 25평과 사택 8평의 공사를 완공하고 그 준공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예배당의 강대상, 회장, 방석 및 차임벨 등은 여전도회와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련했다. 이날 준

공예배에는 본 교회의 남전도회 임원, 회원 및 전도위원회 지도인 김종택목사 등이 참가하였고 교인 및 지방 유지, 이웃교회 교우 등이 참석하여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다.

김기정장로
총회 회계피선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인 김기정 장로는 지난번 총회에서 총회 회계로 피선되어 1년동안 총회의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 또한 이 총회에서 김기정 장로는 회계외에 총회신학 대학 재단이사, 기독교신보 발행이사로 피선되었다. 김기정 장로는 교회에서도 건축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산업전도회 제1회

조찬기도회를 개최

산업전도회는 오는 11월1일 아침 7시 유년부실에서 제1회 조찬기도회를 갖는다. 금번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업인과 산업전도에 관심 있는 분이 모여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산업을 위해 기도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기도회에는 정상우목사가 설교를 하고 김의철·한경일·김기정 최석주·오태희장로가 각각 제목별로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 모임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산업인이모이고 또 온 교회가 산업전도를 위해 관심을 갖게 된 데 의의가 있다.

각 종 통 계

1979. 9. 2 (매월첫주기준)

구 분		남	여	계	총세대수 3,206	
집 배 						

10월의 행사

- 7일 정기 제직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임원회, 산업전도회, 재정위원회
월례회, 주교교사헌신예배
- 11-14일 성례식
11, 12일 / 학습, 세례, 입교문답
12일 / 세례식
14일 / 성찬식
- 12일 교회 철야 기도회
- 14일 남전도회, 권사회 월례회
- 15, 16일 교육위원회 주최 교사단기 훈련
- 17일 여전도회 임원회 철야기도회
- 21일 여전도회, 재정위원회, 선교실행위원회
월례회
- 22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 24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8일 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 월례회
산업전도 교육부 헌신예배
- 29일 건축위원회 월례회의
- 30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 ... 잠시 귀국하셨던 이종표목사님을 만나 나눈 이야기에서 많은 생각해야 될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해외 한인교회의 역할등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지 못했던 점들을 이야기 할 수 있었고 한인교회가 세계선교 사업에 귀한 기초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한 두가지 생각할 수 있었음은 꼭 다행한 일이다. 한인교회의 의의와 그 중요성을 각자 음미해 보고 또 협력방안을 각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 윤형철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며 써 주신 글에서 종교개혁의 의미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

떠한 종교개혁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각자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될지들을 생각해 보자.

* ... 점차 한글 번역본 성경이 늘어나고 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초창기의 한글번역에서부터 오늘날의 번역본까지 각 시대별로 그 상황을 풀어 설명해 준 한글 번역 성경·형성에 관한 김차생장로님의 글은 귀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귀한 글을 써 주신 장로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 ... 어느덧 금년도 저물어 간다. 그동안 많은 지도와 성원가운데 이처럼 발전하게 됨을 감사드리지만 아직도 여러면에서 미흡함을 시인하며 보다 많은 발전을 위해 발버둥 쳐 본다. 많은 관심과 이해 있으시기 바란다.

* 1979년 월간총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재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태용 이사례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재원

월 간 총 현

10월호

제7권 통권 제70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10월 28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간/이 준 교
편집국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현교회

100-서울 중구 중무로 5가36
267-9937-9738



성경 해석이란 ?

본래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필요

성도들중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문자 그대로 받아 생활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눅24:32) 성경의 해석이 없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대로는 우리가 그 내용의 명백하고 풍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미를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해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성경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교리와 교파가 달라지며 심할 경우에는 이단과 정통까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1. 다른 교파에서 성경해석 하는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면상 우리가 소속된 개혁신의적 입장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성경해석의 원칙을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 ①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되 그 권위는 하늘에서 바로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 ② 성경은 독자적 신임성(獨自의 信任性)을 가졌다 즉 성경 스스로가 진리임을 증명한다.
- ③ 성경을 진정으로 알려면 성령의 내증(內證)에 의해 눈이 열려야 한다.
- ④ 우리가 믿고 있는 66권 성경외의 가경(假經)은 성경이 아니다.
- ⑤ 성경은 그 원어(原語)에 의하여 해석 되어야 완전하다.
- ⑥ 유전(遺傳)에 예종(隸從)하고 의존(依存)하는 해석주의를 배척한다.
- ⑦ 성경제시의 필연성(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앞선다는 것) 충족성(성도의 구원을 이루며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충분하다)명백성(일반 성도들도 읽고 해석할 수 있다)을 믿는다.
- ⑧ 성경 해석에 대한 최후 심판자는 성경 자체이다.
- ⑨ 성경을 인간자의로 억해(臆解)하지 말것이다.

- ⑩ 문법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⑪ 역사적 해석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 ⑫ 성경에서 취하는 정당한 추론(推論)즉 그 절 자체가 교훈을 지지하거나 성경의 다른 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훈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
- ⑬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 교리를 중요히 참조한다.
- ⑭ 의미가 불분명(不分明)한 귀절은 분명한 성구(聖句)의 의미에 비추어 해명(解明)한다.

2. 성구(聖句)의 의미에 비추어 해명(解明)한다.

또 성경해석자가 의지해야 할 규범은

- ① 성령님을 주인공이신 해석자로 의지할 것. 그 이유는 성경은 성령님께서 영감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서로서로 해석을 해주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②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중심이라는 것. 해석자는 성경의 모든 부분 특히 중대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와 관계된 내막을 발견해야 된다.
- ③ 교회적 해석이나 교리가 최종적 권위는 아니라는 것 성경해석을 위해 교리를 중대하게 참조하며 의지하나 최종적 권위는 성경 자체이다.

3. 성경해석을 위한 개인적인 자격은

- ① 중생한자 ②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열심이 있는자 ③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 ④ 성령님의 인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

4. 성경해석이 각각 다른 경우는

- 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설명을 해 주며 모든 교회가 동일한 해석을 한다. 즉 한개의 산을 다른 방향에서 보지만 보는 정상은 같은 것과 같다.
 - ② 시대적인 정신관계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이 해결 해 준다.
 - ③ 성경해석의 차이는 교회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혹 달라질 수도 있으며
 - ④ 성령님께서 차이점을 통일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며 ⑤ 작은 부분의 차이는 그리 큰문제가 안 됨
- 마지막 결론으로 개혁신의의 가장 강조해야 되는 성경해석의 원칙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